

“우리 마을 재난상황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극한 호우때 빛난 광주시민방송 '마을재난방송' 활동기들

주부·소방관·청년 등 라디오·유튜브로 피해 상황 실시간 전달 “마을 단위 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역민 보호 위한 방송 최선”

“저는 지금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광주여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양동으로 쏟아붓듯 비가 많이 내리고 천동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어 운전자, 보행자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구 중흥 1동은 발목까지 물이 찬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물이 자주 차는 지역인데 빗물 배수구가 막혀있어 위험합니다.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 우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3일 라디오에서는 비 피해 상황을 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광주시민방송이 올해 처음 시작한 ‘마을 재난방송’에서 12명의 마을 활동가들은 리포터가 돼 생생한 현장을 전달했다.

광주시민방송은 2016년 개국해 기후위기,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다. 전국 또는 수도권 위주의 재난을 다루는 중앙방송과 달리 우리 지역의 상황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엔 재난방송 제작에 나섰다.

마을 재난방송은 극한 호우 등 지역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라디오(FM88.9MHz)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자치구와 동 별 피해 상황을 전달한다. 특히 상수 침수구역인 신안동, 삼각동, 중흥 1동, 효덕동, 상무 1동 등 5개 동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가 진행을 맡고 주부, 소방관, 자영업자, 청년 등으로 이뤄진 마을 활동가들은 방송국 SNS를 통해 각각의 위치와 현장 사진·영상을 보낸 뒤 현장 전화 연결을 통해 상황을 알린다.

김현자(여·60) 마을활동가는 이달 3일 자신이 살고 있는 신안동에 집중된 비 피해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렸다. 그는 도로와 인도까지 물이 가득 차 신안교 사거리 통행이 어렵고 침수 위험이 있어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30년간 신안동에 살며 겪은 비 피해 중에 올해 여름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웃의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차량은 침수 위기에 처해 무섭고 막막했죠.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고 전화 중계로 사람들에게 신안동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안동자원봉사센터 캠프장인 그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용봉초 대피소에 차량으로 이동시켰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안교 옆 거주민들을 위해 대피소 내 텐트를 설치했다. 또 비가 발목까지 차기 시작했을 때는 곧장 도로 밖으로 나가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들을 이동시키기도 했다.

25년 경력의 소방관 최장기(55) 광주 서부소방민원팀장도 마을 재난방송 활동가다.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지난달 17일과 밤 사이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이달 3일 비상근무했던 그는 실시간으로 마을재난방송을 들으며 활동가들이 전하는 산사태 우려 지역, 비 피해가 큰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난 때마다 피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있는 그는 “매년 기후 위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영주 광주시민방송대표(오른쪽)가 마을재난활동가들이 보낸 현장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마을재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방송 유튜브 갈무리>

는 걸 느낀다”며 “올해도 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마을 재난활동가로서 지역민들에게 위험한 곳을 빠르게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민방송은 앞으로도 마을 재난 방송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금영 광주시민방송 방송본부장은 “호우 피해뿐 아니라 폭염과 폭설 등 광주지역 특보, 경보, 주의보 등이 내려지면 마을단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광주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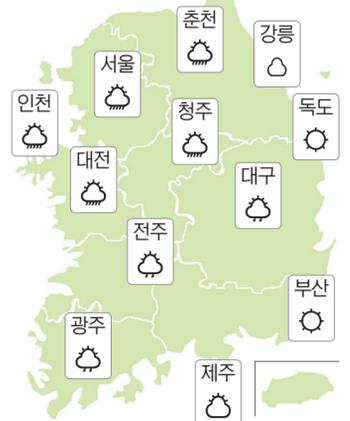
해돋이	05:51	달뜨기	22:04
해질름	19:23	달지기	10:56

무더위·열대야

5~4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주	소나기	25/34	보성	구름많음	24/33
목포	맑음	26/32	순천	구름많음	25/34
여수	맑음	26/32	영광	맑음	25/33
나주	구름많음	23/34	진도	맑음	25/32
완도	맑음	25/34	전주	소나기	26/34
구례	소나기	24/34	군산	맑음	26/31
강진	맑음	24/34	남원	소나기	23/34
해남	맑음	25/33	흑산도	맑음	26/32
장성	소나기	24/33			

◇전국 날씨



◇바다 날씨

		파고 (m)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북)	0.5~2.0	0.5~1.5
	면바다(남)	0.5~2.0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
	면바다(서)	0.5~2.0	0.5~2.0
	면바다(동)	0.5~1.5	0.5~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37	05:29
	22:55	17:57
여수	06:01	12:23
	18:15	-:-

◇생활지수

미세먼지	좋음
------	----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25/33	25/33	24/33
18(월)	19(화)	20(수)
24/33	24/32	25/33



광주시교육청, 호우피해 성금 전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860만원을 광주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사진>

본청 교육감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정선 시교육감과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이상철 광주아너소사이티 회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금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 374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전달된 성금은 광주 지역 피해 긴급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환아 참여 희망백일장 개최

화순전남대병원이 지난 12일 소아청소년과 외에서 환아들이 참여하는 ‘꿈으로 만드는 희망백일장’을 개최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센터와 여미사랑 병원학교, 전남권역희귀질환전문기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

등이 함께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백일장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제작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예정된 ‘제25회 안치잔치’에서 전시된 뒤 참가자들에게 기념으로 증정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다문화 어린이 도시철도 견학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사회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광주도시철도 특별 견학’을 실시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국립광주과학관 ‘미래 과학자들의 생일파티’ 개최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12일 어린이과학관에서 남구지역 아동센터의 생일자 15명의 어린이를 과학관으로 초청해 ‘8월 미래 과학자들의 생일파티’를 개최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생활 게시판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시작하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48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60년생 경험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72년생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84년생 비슷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생하는 것도 좋다. 96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1, 91
丑	37년생 쓸모가 없으니 체면은 빼놓으라. 49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확인되지 않았다면 적용해서는 안 된다. 73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85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97년생 조목조목 따져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8, 59
寅	38년생 행운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50년생 어떠한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주관을 가져라. 62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74년생 처음부터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86년생 겉모습까지 신경 썼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98년생 노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진전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81
卯	39년생 꼼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51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6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75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잡아내야만 하느니라. 87년생 풍요로운 재물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99년생 마음속에 새겨서 잊지 않음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9, 71

8월 14일(음 윤6월 21일 乙卯)

辰	40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 52년생 답답하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76년생 불만만 있다면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분명히 알라. 00년생 굳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2, 66
巳	41년생 어슬프게 행하려거든 아니하면 못하느니라. 53년생 예상치 못했던 데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65년생 만회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느니라. 77년생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89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01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13, 80
午	42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66년생 집착을 떨쳐 버린다면 폭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78년생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으니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 90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02년생 기능의 활용에 신경 써라. 행운의 숫자 : 34, 90
未	43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라. 55년생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이다. 67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 받는다. 79년생 확실한 절제와 과단성 있는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91년생 방침과 인간적인 배려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라. 03년생 경쟁 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07, 50

☎ 010-9790-8237

申	44년생 호조건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56년생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무너져 내린다. 68년생 징후가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80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92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04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5, 83
酉	45년생 생상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57년생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간에 평정심을 유지하라. 69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81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93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05년생 과신함은 참으로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23, 77
戌	46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58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서 처치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70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된다. 82년생 누가 먼저 저를 짓밟아 줄지 지켜볼 일이다. 94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06년생 지속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0, 79
亥	47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59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71년생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영광이 따르리라. 83년생 약담 끝은 없어도 막담 끝은 있느니라. 95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07년생 통쾌적인 절제에 따르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7, 62